마무리와 보냄을 준비하며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한 달이 되었다. 연말에 생긴 큰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정말 엊그제 새로운 서원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2024년 새해였는데, 어느새 그 마무리와 보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이면 2025년 새해의 부푼 기대와 또 다른 서원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불교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불교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삼세(三世)를 시간으로 본다. 과거가 지나가면 현재가 오고, 그 현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셈법이 다소 다르다. 과거에 자신이 행한 일에서 생겨난 에너지(영향력)가 미래로 먼저 간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에너지와 유사한 어떤 일을 다시 행하거나 시기가 되면 그 에너지가 지금의 현재로 이행되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미래-현재의 순으로 시간의 흐름을 논하는데 이를 '삼세실유설(三世實有說)'이라 한다.

과거는 물론 이전에 행한 일도 있으나, 지금 방금 내가 한 일도 포함된다. 지금 방금 그 일을 했어도 이미 그것을 행한 순간 벌써 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업(業, Karma)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일은 반드시 자신이 되돌려 받는다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행한 일의 결과를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원칙도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은 우리 곁에서 함께하지만
한 순간도 우릴 기다리지 않는다
보냄은 새로움 이어지도록 해야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행위의 업이 현재가 아닌 미래로 가는 것이 다소 의아하다. 그 이유는 곧바로 현재로 온다고 하면 그로 인해 미래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그래서 그 변화의 행동이 다시금 에너지가 되어 그와 비슷한 미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지난 과거에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만을 한없이 기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지금의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고 점차 변화하기 위해 수행(노력)한다면 우리의 지금이 바뀌고, 그로 인해 지난 과거는 미련이 아닌 만족스러운 어제로 변하고, 오지 않은 미래는 기대로 가득 찬 내일이 될 것이다.

이제 곧 새로운 2025년 한해가 올 것이다. 이 한 해를 '새해'라고 지칭하는 것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그 한해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떠나보내는 2024년은 아쉬움의 지난 한해가 아닌, 그 한해 속에서 책임져야 할 것을 더욱 확인하고, 못했던 것을 찾아 기필코 해보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한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지금처럼 함께하지만, 그 시간은 단 한 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냉정하고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는 무서움으로 우리의 곁을 쏜살같이 지나간다. 보내는 한해가 새로운 한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을 잘 살피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과 인연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한 걸음 나아가자.

천겁이 지나도 옛날이 아니요.
(歷千劫而不古)
만세를 뻗쳐도 언제나 지금뿐이로다.
(亘萬歲而長今)

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지난 여름은 길었다. 11월 초까지도 반소매 옷을 넣지 못할 정도로 더웠으니. 그러다 폭설이 내렸다. 폭설의 원인은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했다.

눈은 물기 많은 습설도 있고 뭉쳐지지 않아 눈싸움을 할 수 없는 건설도 있다. 강원도에서는 겨울이면 소나무가 무거운 눈을 이고 있다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 일이 그다지 새롭지 않다. 이번에 많은 나무가 피해를 본 건 단지 습설이어서가 아니라 겨울이 오는데도 잎을 떨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내 기온이 높으니 나무는 계절이 바뀌는 걸 미처 감지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 눈이 쏟아지니 수많은 잎에 그것도 물기 많은 눈이 쌓이며 어마어마한 하중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낙엽의 시기를 놓쳐버린 나무가 지나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니 단지 폭설이라는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이 오래도록 머무를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원인은 누구나 아는 탄소배출이다. 그렇다면 탄소배출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걸까?

'파리협약'이 통과되던 2015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중요한 회의였다. 기후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는 이들의 허기를 달랠 카페테리아에서는 일회용품에 음식을 담아 팔았고 화장실에 가면 사용하고 버린 종이 타월이 쓰레기통에 넘쳐났다. 이런 사소한 실천을 간과한 채 어떤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가 싶어 자괴감이 몰려왔다.

기후 위기 극복 실천법 누구나 안다
내 삶을 단순하게, 검박하게 하는 것
그것 말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을까

회의장을 오가며 내 안에서 회의감이 진하게 일던 어느 날 각국에서 모인 환경활동가들이 기후 위기의 해법에 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각자가 생각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내 바로 뒤에서 어떤 분이 플로어 발언을 청했다. 뒤를 돌아보니 대만 법고산사 뉴욕 브랜치에서 오신 한 비구니스님이었다.

"우리가 여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몰라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말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스님은 마치 내 심경을 꿰뚫어 보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당장 실천할 방법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꼭 있다. 정말 방법을 모르는 걸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번에 뚝딱 해결할 방법은 없다. 지금 내 삶의 족함을 아는 것, 더 단순하고 검박하게 사는 것, 순간순간 깨어있어 내 삶을 객관화시켜 보는 것. 그것 말고 달리 뭐가 있을까?

빈손으로 와서 현재 누리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 비인간과 더 나눌 방법을 찾는 삶, 그것 말고 어떤 신박한 방법이란 없다. 결국 내 욕망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말고 뭐가 있을까?

社 說

가톨릭 청년대회에 法제정 왜 필요한가

12월 9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문제가 됐다. 특별법에는 가톨릭이 주최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살펴보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무시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회를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위원에 국무위원들도 대거 참여토록 돼 있다.

또한 대회 이후 후속 사업을 위해 국제순례지에 체험장, 전시관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2037년까지 제공키로 한 조항은 사실상 가톨릭의 선교를 국비를 들여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톨릭은 2010년 이후 불교와 민족종교의 역사를 지우면서 자신들의 성지화 사업을 추진해 종교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는 선교 목적이 다분한 대회의 조직을 사단법인화 하고, 이웃종교인을 들러리 세운 뒤 '공공성'을 포장해 특별법 지원을 발의시켰다.

국무총리를 위한 국무위원을 지원조직의 위원으로 넣고 행사 시설을 10년 동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다. 종교계의 어느 대회가 이처럼 지원을 받아 개최가 되었는지, 가톨릭과 국회에 묻고 싶다. 국회는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을 중지해야 한다.

내년에도 트렌디한 불교가 되길

매년 송년특집호에는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게 된다. 해마다 편차가 있지만, 본의 아니게 불교계 관련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불교인으로서 기분이 좋지는 않다. 올해의 경우 좋은 소식들이 많은 편이어서 한결 마음이 편했다.

올해 10대 뉴스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힙(Hip)한 불교'였다. 어렵고 고리타분한 편견에서 벗어나, 재밌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무장한 불교는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서울·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2030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불교 굿즈들은 불티나게 팔렸다.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뉴진 스님'도 불교계 안팎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힙한 불교 열풍과 함께 인기를 얻은 것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다. '사찰 소개팅'이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함 덕분에 1년 내내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매회 높은 커플 매칭률을 보여 결혼정보회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실 불교는 언제나 시대를 선도하는 트렌디한 종교였고, 트렌디함을 바탕으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다. 불교의 강창과 불화, 변상도 등은 모두 부처님 법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바라본다는 의미다. 2025년 을사년에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를 선도하는 트렌드를 불교계가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2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2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2월 1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